

INCROSS Market Insight

디지털 ESG 경영

모두를 위한 디지털 변혁, ESG 성과 가져오다



ESG 경영, 기업 경영의 화두가 되다

-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회장 래리 핑크는 투자기업 CEO들에게 보내는 연례 서한 중 “2050년 넷제로(탄소중립) 목표의 달성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공개해 달라”고 공식 요구함. 이는 투자 의결권 행사를 통해 기업 ESG 경영에 직접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는 의미로 ESG 혁신이 불가피함을 보여줌
- 투자의 핵심 요소가 될 만큼 ESG 경영은 기업 경영의 화두가 되어가고 있음. ESG 경영이란 ESG (환경, 사회적 요소, 지배구조)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경영하는 것을 의미함. ESG 평가 요소에는 환경-환경경영, 환경 성과, 이해관계자 대응 / 사회-근로자, 협력·경쟁사, 소비자, 지역사회 문제 / 지배구조-주주권리 보호, 이사회, 감사기구, 공시 등의 요소가 있음

블랙록 회장, 투자기업 CEO들에게 보내는 2021 연례 서한 중



“2050년 넷제로(*온실가스 배출과 흡수가 균형에 이른 상태) 달성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기업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출처: 아주경제

ESG 경영 정의와 평가요소

| ESG 경영이란?

**ESG
경영**

환경(Environmental),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의 앞 글자를 딴 약자로,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을 의미
+
ESG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경영하는 것

| ESG 평가 요소

환경	사회	지배구조
환경 경영 환경 성과 이해관계자 대응	근로자 협력사/경쟁사 소비자 지역사회	주주권리 보호 이사회 감사기구 공시

출처: SK hynix 뉴스룸, fidelity 자산운용

제조업·친환경 위주인 ESG 경영, 마케팅 업계와는 거리가 멀까?

- 현재까지의 ESG 경영 방식은 주로 생산·제조업에서의 친환경 요소를 중점적으로 다뤄 옴
- 국내 ESG 브랜드 랭킹 1위부터 5위 전부 제조 및 제품 판매 관련 업종에 해당했음. 삼성전자와 애플의 ESG 점수를 비교한 결과 환경 이슈와 사회 이슈에서는 삼성전자의 점수가 앞섰지만, 지배구조 이슈에서는 애플이 한 발 앞서는 것으로 드러남. ESG 경영을 실시하는 산업군은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ESG 의제 중 환경 이슈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제조업, 친환경 위주인 ESG 경영 방식에서 서비스 제공 위주인 디지털 업계는 진입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제조업과 친환경 위주인 ESG 경영

| 국내 ESG 브랜드 랭킹 1~5위 업종

(단위: %, 응답률 기준)

순위	기업명	산업분야	종합 점수
1	LG전자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9.5
2	LG생활건강	화장품, 생활용품, 음료 제조·판매	7.4
3	SK이노베이션	원유정제처리 및 액체연료도매업, 석유화학산업 등	6.6
3	LG화학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제약	6.6
5	삼성전자	전자 제품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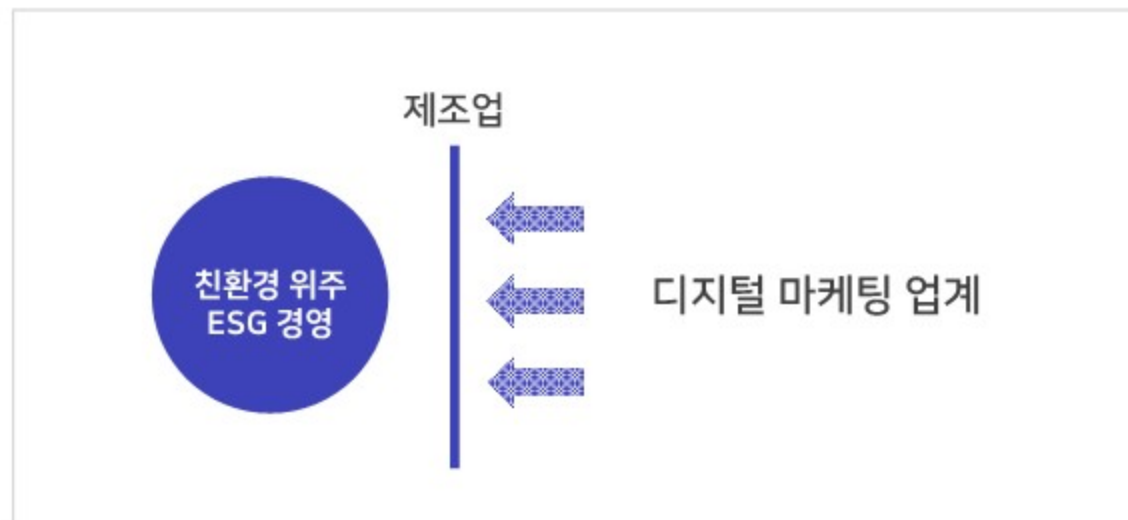
| 기업별 ESG 점수 비교 (컴퓨터와 주변기기 기업군, 전체 82개 기업 대상)

(단위: 점)



출처: 한경, 더중앙

디지털 마케팅 업계의 ESG 진입 한계



친환경 제품 생산 위주인 ESG 경영,
디지털 마케팅 업계의 진입 한계

가속화된 ESG 경영 논의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 디지털 업계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코로나19 이후 ESG 경영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 됨. 코로나19 이후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경각심이 생겼고, 다수가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면서 ESG 경영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 됨. 비대면 기술 사용이 불가피해지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또한 빠른 속도로 진행됨
- 기업에 있어 ESG경영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되었음. 그러나 사회·환경적 가치를 위해서 ESG 투자를 실천하는 것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는 상당한 비용이 듦. ESG 경영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해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기업의 자원과 프로세스를 표준화, 모듈화 해 비용을 절감하고 비즈니스 모델 개선을 가능케 해 ESG 혁신을 지원함

코로나19 이후 ESG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관심 증가



ESG,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어떻게 대응할까



ESG 비용 투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비즈니스 모델 개선해 해소하다

출처: KDI 경제정보센터

다양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도를 통한 디지털과 ESG 경영 접목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디지털 변혁)'이란 디지털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변화를 동인으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전략, 프로세스 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디지털 기반 경영 전략 및 경영활동을 의미함
- 고객 문제를 중심으로 사업의 본질을 명확히 정의하고, 자원과 프로세스를 표준화, 모듈화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을 통해 온디맨드 서비스(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수요자가 원하는 형태로 즉각 제공되는 경제 시스템)를 구축하거나, 디지털과 ESG 경영을 접목할 수 있음
- 스타벅스 'Bean to cup'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커피의 생산과 유통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사회 문제인 커피 농장의 인권 및 노동권 침해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예시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그 과정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디지털 변혁 Digital Transformation

'디지털'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변화를 동인으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전략, 프로세스, 시스템, 조직, 문화 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디지털 기반 경영전략 및 경영활동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과정



고객의 문제를 중심으로
사업 본질 명확하게 정의



사업 가치 추구 위해
자원과 프로세스를 표준화·모듈화



온디맨드 서비스
ESG 혁신

출처: KDI 경제정보센터, 삼성 SDS 뉴스룸

ESG 경영을 D.T 통해 실천한 사례 - 스타벅스 'Bean to cup' 프로젝트



프로젝트 배경

- 인권 및 노동권 침해가 발생한 농장의 커피 사용이 이슈화 됨

디지털 변혁

- 블록체인 기술 활용해 커피 생산 정보 및 유통 이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앱 서비스 오픈
-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전세계 커피 농장의 생산, 제조공장, 물류센터 모니터링 가능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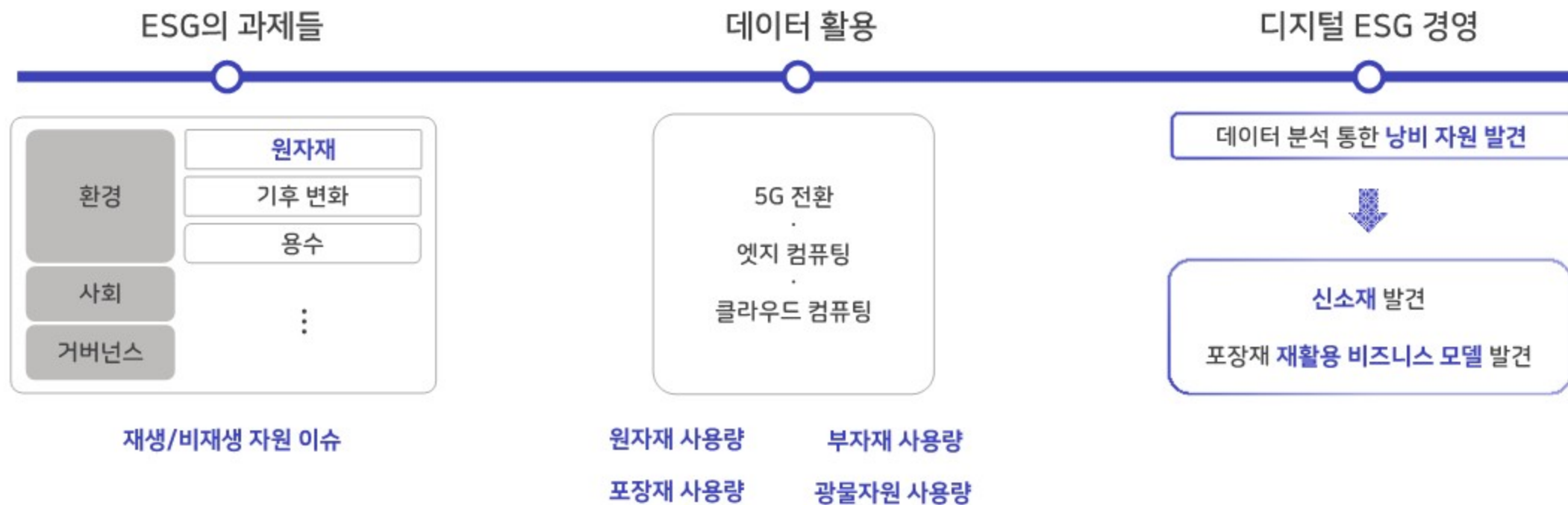
- 소비자의 윤리적 구매 실현, 농장주에게는 가격/유통 투명성 제공해 생산량과 품질 향상에 기여

출처: 삼성 SDS 뉴스룸

디지털 ESG경영의 차이는 '데이터'에서 온다

- 디지털 ESG 경영과 기존 ESG 경영의 차이는 빅데이터의 활용에서 온다
- 예를 들어 ESG경영 의제 중 원자재 문제에 해당하는 재생/비재생 자원 이슈의 경우, 5G와 엣지 컴퓨팅을 통해 생산된 '원자재 사용량', '부자재 사용량'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낭비되는 자원을 발견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음
- 생분해되는 신소재를 발견하거나, 포장재 재활용 비즈니스 모델을 발견하는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ESG 경영 실천도 가능함

ESG 분야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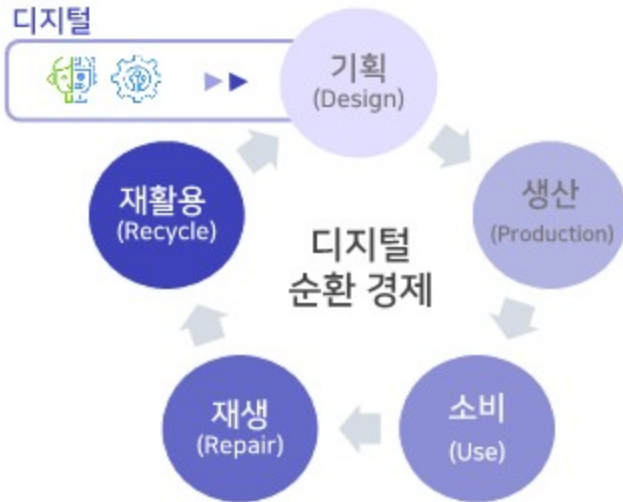


출처: 삼성 SDS 뉴스룸

Environmental: 순환 경제, 디지털과 만나 환경 보호 이룬다

- 디지털 ESG 경영 환경 의제 중 디지털 순환 경제가 화두가 되고 있음. 순환 경제란 산업의 각 단계마다 재생을 통해 자원을 재활용하는 지속적 경제 구조를 의미
- 디지털 순환 경제는 순환 경제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적용된 것을 의미함. 제품 기획 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한 공급망을 구성한다든지, 제조 시 설비 공유를 통해 가동률 최대화를 이루는 것 등을 의미함
- 생수 업체 산수음료는 R&D 투자를 통해 생분해되는 페트병을 개발했으며, 비대면 판매가 대세가 됨에 따라 정기배송 고객을 대상으로 빈 병을 직접 회수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디지털 순환 경제의 예시임

순환 경제, 디지털과 만나다



- 1 제품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한 순환식 공급망 구성
- 2 제조 시 설비 공유 등 공동 이용 촉진을 통한 가동률 최대화
- 3 기획 단계부터 제품 필요성 검토해 제품 판매 대신 서비스로 출시

출처: SK hynix 뉴스룸

'산수음료', 에코 회수 캠페인



캠페인 배경

- 분리배출로 재활용되는 페트병 비율 전체의 21%에 불과, 회수 시스템 혁신이 필수적이라고 느낌

디지털 변혁

- R&D 투자 통해 국내 최초 바이오-페트 (생분해 페트병) 개발
- 2021년 6월 환경부와 협약 맺고 자가 회수 시스템 도입, 정기배송 고객을 대상으로 빈 병을 직접 회수함

성과

- 코로나19로 인해 유통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함, 현재 산수음료 전체 판매 70%가 온라인에서 이뤄짐

출처: 중앙시사매거진

예시) 친환경 제품 큐레이션 플랫폼

- 기존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에 친환경 큐레이션 기능을 추가해 환경 보호 관련 정보를 고지하고,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음
- 지역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은 누구나 업데이트할 수 있는 오픈맵 형태의 '우리동네 친환경 가게 지도'를 선보임. 앱 내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 있는 가게 위치와 상호명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기존 지도 앱 내에 친환경 관련 탭이나 친환경 점포 아이콘을 추가해 재할용 용기를 활용하는 점포 정보를 고지하거나, 비건·환경보호 실천 업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큐레이션 플랫폼을 구성할 수 있음

당근마켓, '우리동네 친환경 지도'



서비스 개요

- 당근마켓, '우리동네 친환경 가게 지도' 선보임
- 누구나 정보 업데이트, 수정할 수 있는 오픈맵 형태
- 가게 위치와 상호명 등 기본 정보부터, 해당 점포가 실천하고 있는 환경 보호 노력, 이웃들의 이용 후기 등을 확인할 수 있음

성과

- 우리 동네 친환경 가게를 소개하는 캠페인 댓글 이벤트에 5,165개에 달하는 댓글 참여 이뤄짐. 이 중 3,816 곳의 가게가 등록됨

출처:MoneyS

지도 앱내 큐레이션 탭 예시



1



친환경

친환경 탭 통해 근처 친환경 용기 사용 업체 큐레이션

2



친환경 아이콘 통해 비건/환경보호 실천 업체 큐레이션

Social: 비대면 직거래, 지역 농산물 활용한 제품으로 지역 상생 실천

- 농축수산물 업계 또한 디지털 변혁의 바람을 맞고 있음.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농축수산물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전년 대비 71.4% 증가한 6조 563억 원을 기록하는 등, 비대면 판매가 주요 판매 방식으로 자리 잡음
- 기존에는 현지에서 직접 경매하는 방식으로 농수산물 경매가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온라인 경매가 도입되어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상품을 보고 중간 유통 단계 없이 농수산물 구입 가능. 온라인 경매를 통한 농산물 직거래로 1년 만에 실적 32배를 달성
- 기업들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출시로 지역 상생을 실천하고 있음. 한국 맥도날드는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여 지역 경제화에 기여하는 취지로 경남 창녕에서 생산한 마늘을 활용한 '창녕 갈릭 버거'를 출시해 선풍적인 인기를 얻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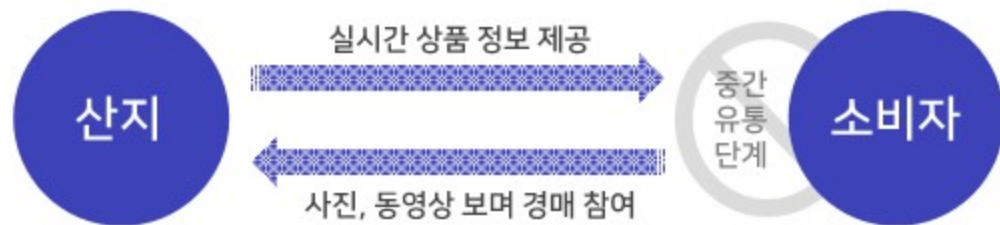
농수산물 비대면 판매 방법 다양해지자 실적 늘었다

| 농축수산물 온라인쇼핑 거래액

(단위: 억 원)



| 농수산물 온라인 경매로 실적 증가



온라인 경매로 산지와 농산물 직거래... 1년 만에 실적 32배 늘어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조선일보

지역 농산물 활용한 제품으로 지역 상생 실천



프로젝트 개요

- 한국 맥도날드, 경남 창녕에서 생산한 마늘 활용해 '창녕 갈릭 버거' 출시

목적

- 국내산 식재료를 활용한 신메뉴 출시해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여 지역 경제화에 기여하는 취지로 시작

성과

- 출시 3주 만에 판매량 110만 개 돌파

출처:한경

예시) 재택 근무, 메타버스 근무로 근무 환경 개선

- ESG 의제 중 사회적 문제에는 직원들의 근무환경 문제가 존재
-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기업이 증가함.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재택 근무에 만족하는 직원 비율은 91.3%, 재택 근무로 업무 효율이 높아졌다는 비율이 73.9%이며, 재택근무의 가장 큰 장점으로 '출퇴근 스트레스 해소(86.0%)'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재택근무 시 메타버스 플랫폼을 도입해 원활한 비대면 소통 환경을 조성하는 곳이 늘고 있음.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은 본사 건물을 없애고 가상 오피스 '메타폴리스'에서 영구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음. 아바타를 통해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출퇴근 시간이 사라져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음

재택근무 활용 효과



재택 근무에 만족한다

91.3%



재택 근무로 업무 효율이 높아졌다

73.9%

출퇴근 스트레스 해소

86.0%



여가시간 확보로 삶의 질 향상

36.5%

일·가정 양립 기여

27.8%

업무집중도 향상

27.8%

출처:고용노동부

메타버스 이용해 원활한 소통 가능한 근무 환경



개요

- (2021년 7월 1일 시행) 직방, 본사 건물 없애고 가상 오피스 '메타폴리스'에서 영구 재택근무

특징

- 아바타를 통해 동료의 표정이나 목소리를 그대로 전할 수 있어 실제 오프라인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유대감 형성
- 출퇴근 시간 사라져 삶의 질 높아지고 커뮤니케이션 소요 시간 및 에너지 줄일 수 있어 편리하다는 평가

출처:신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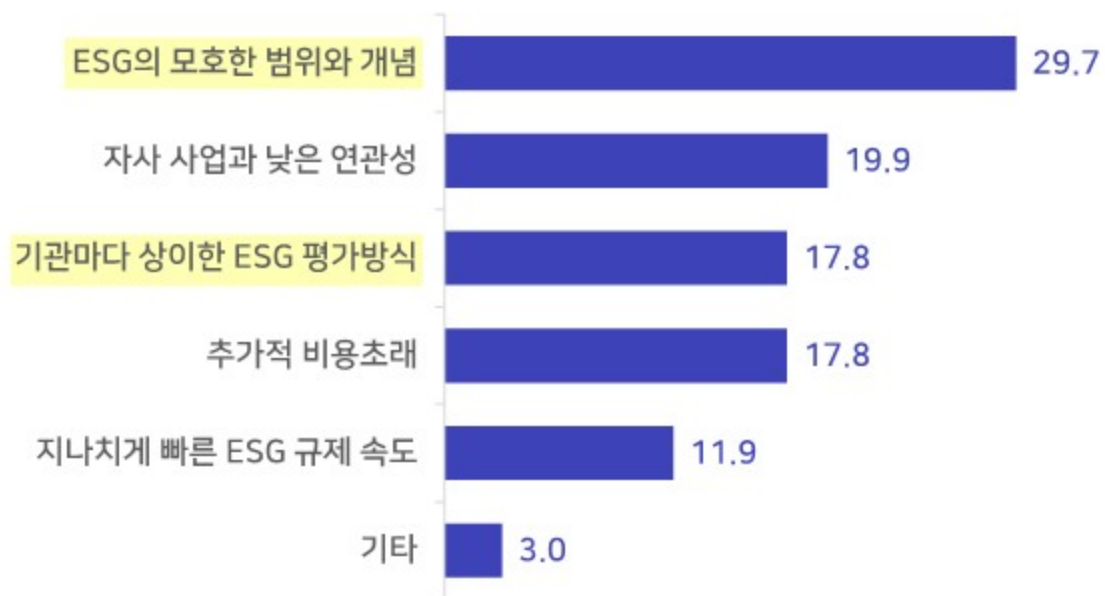
Governance: 실무자 빅데이터 반영한 ESG 지수 평가체계 구축

- ESG 경영 '지배구조' 의제에서 가장 큰 이슈는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임. ESG 전략 수립 시 애로사항으로 'ESG의 모호한 범위와 개념'을 뽑은 비율은 29.7%로 가장 높았고, '기관마다 상이한 ESG 평가방식'이 17.8%를 차지함. 두 문제 모두 ESG 경영의 기준이 되는 평가 데이터가 부족해서 발생함
- 직장인 커뮤니티 플랫폼 '블라인드'는 컨설팅 회사 '크라운랩스'와 손을 잡고 '크라운 인사이트'를 설립함. '블라인드'를 이용하는 기업 재직자의 실제 기업 평가 데이터를 ESG 평가 기준에 활용함으로써 ESG 평가 데이터의 신뢰 수준을 향상시키고, ESG 관련 법·제도 마련의 기반을 다질 것으로 보임. 실무자 데이터 활용한 평가 체계는 기업 구성원 다수가 기업 문제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거버넌스적 측면을 가짐

ESG 경영의 가장 큰 문제는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

| ESG 전략 수립 시 애로사항

(단위: %)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실무자데이터로 기업 ESG를 직접 평가한다

**crown
insight**

직장인 커뮤니티 플랫폼 '블라인드', '크라운랩스'와 손잡고 '크라운인사이트'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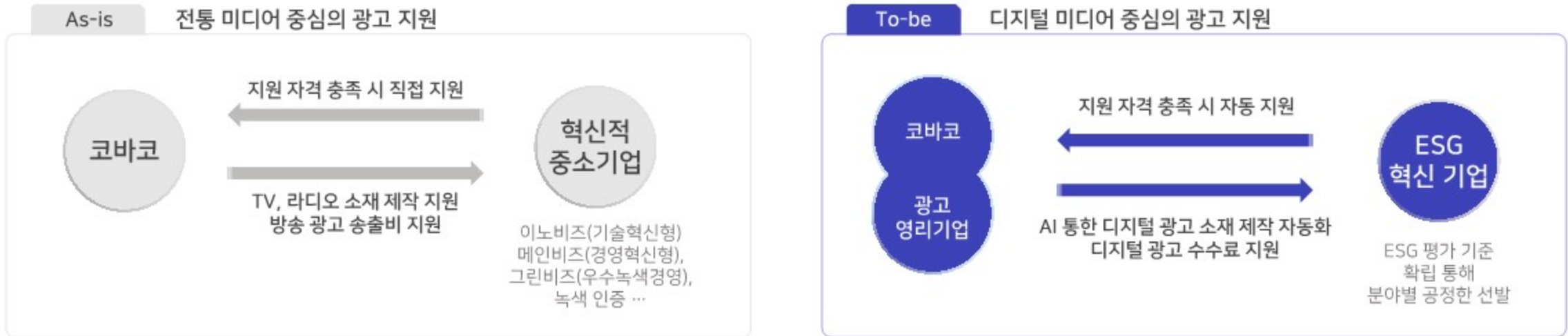
출처:시장경제

기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사회적 기업에 광고 지원

- 디지털 광고 업계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에 대한 광고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ESG 경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임
- 기존 광고 지원 사업은 TV, 라디오 소재 제작 지원 및 방송 광고 송출비 지원 등 전통 미디어 중심이었음. 또한 중소기업이 지원 자격을 충족하면 직접 지원을 신청하는 방식임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진행됨에 따라 추후에는 디지털 미디어 중심의 광고 지원을 통한 ESG 혁신 기업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ESG 평가 기준이 확립되면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기업들은 해당 사업에 자동으로 지원이 되고, 코바코 및 광고 영리 기업은 AI를 통한 디지털 광고 소재 제작을 지원하고, 디지털 광고 수수료를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기대

ESG 혁신기업 광고지원구조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출처:Kobaco

[전망] 디지털 · 디지털 광고 업계, ESG 경영의 첫걸음이 되다

- 디지털 ESG 경영을 실행하는 첫 걸음은 디지털·디지털 광고 업계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인해 디지털 업계와 디지털 광고 업계의 입지가 커지는 상황임. 앞서 언급했던 친환경 큐레이션 플랫폼 등 디지털 플랫폼에 ESG와 관련한 기능을 추가해 ESG 친화적인 소비를 촉진할 수 있음. 광고 소재 제작에 있어서도 친환경 요소를 반영하거나, 원자재가 상대적으로 덜 드는 디지털 광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ESG 경영에 도움이 될 것임
- 디지털 광고 지원을 통해 ESG 경영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가능. 디지털 광고 소재 제작 및 수수료 지원 모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자동화 될 것으로 기대

광고 플랫폼, 미디어 통한 ESG 가치 실현



디지털 플랫폼에 ESG 관련 기능 추가

친환경 소비 유도할 수 있는
큐레이션 기능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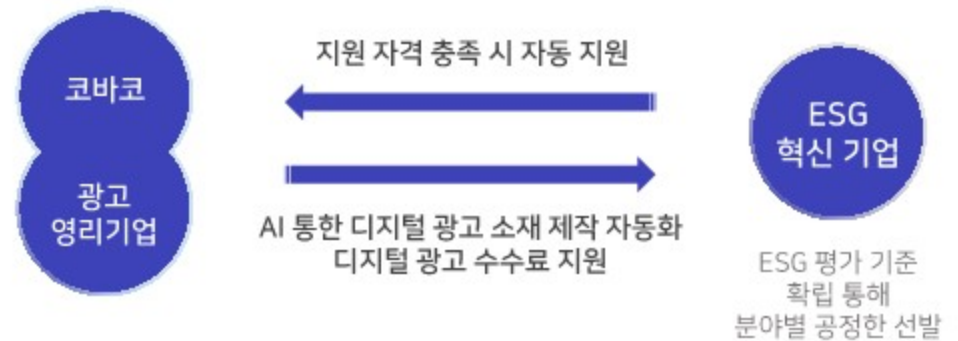


▲ 삼성전자, 한국 맥도날드에 종이, 플라스틱 배출 최소화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공급

광고 마케팅도 친환경적으로

친환경 요소를 최대한 반영한 광고 제작 과정
옥외 광고보다 디지털 광고 적극 활용

디지털 광고 지원 통한 직간접적 지원



ESG 혁신 기업에 디지털 광고비 지원

ESG 혁신 기업 선정부터
디지털 광고 소재 제작, 수수료 지원까지 자동화

출처: 뉴스원

INCROSS Market Insight

E.O.D

미디어랩사 인크로스㈜

리포트관련문의 마케팅기획팀(뉴스레터) ad_news@incross.com

매체 관련 문의 마케팅기획팀 media@incross.com

인크로스의
더 많은 인사이트를
보고 싶다면?

정기구독하기